

해남군, 조례 개정...태양광 난개발 막는다

산림·농지 난개발 환경 훼손·주민 갈등 심화 등 민원 증가
도로변 이격거리 규제 강화·수상태양광 제한 조항 등 신설

해남군이 태양광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도로 중 면도(面道)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했으나 리도

(里道)와 농도(農道)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또 저수지와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

다.

지붕 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1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돼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 부서 회의와 군 계획 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 훼손 최소화과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서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치매 안심마을 담벼락에 핀 꽃그림

신지중 학생들 벽화 봉사활동

완도 치매안심마을 담벼락에 꽃이 활짝 피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치매극복 선도 학교로 지정된 신지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신지면 임촌리 치매안심마을 마을회관 담벼락에 치매 인식 개선 내용을 담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했다.

벽화는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 안심마을’이란 주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구성됐다.

봄은 소년기,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장년기, 겨울은 노년기로 우리의 인생과 비유해 그려냈다.

치매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명대사도 함께 벽화에 담았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난 13일 신지중학교 학생들이 신지면 임촌리 치매안심마을 마을회관 담벼락에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해양바이오헬스산업 거점 자리매김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연구기관 회의서 세부사항 토론

완도군이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통해 해양바이오헬스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완도군은 지난 16일 신지면 해조류스파랜드에서 2019년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연구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전문가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향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진행됐다.〈사진〉

분야별 주요 연구 과제는 정밀의료 개념 적용 연구, 건강기후지수 개발, 완도지역 자원조사 분석, 지역 역량 강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고려대 의과대학 이은일 교수는 정밀의

료 시대에 맞춰 새로운 개념의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지수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건강증진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순천대 김정빈 교수는 완도 지역의 갯벌과 맥반석, 토양자원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완도 지역 해산물의 영양학적 가치 및 맛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타지역 해산물과의 차별성 입증 방안을 제시했다.

완도군은 총사업비 182억원의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조성한다.



또 공동협력 연구소, 해양바이오 스타트업 30개 유치 등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하수용량 지속 증가 주민불편 가중 선제 대응

해남군이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용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증설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 용정리에 위치한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3년 완공돼 최대 1일 900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해남읍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우슬체육공원 전지훈련팀 증가, 구교리 일원 상업시설 확장 등의 요인으로 하수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 증설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마을 단위로 구축돼 다수의 하수처리

장이 난립하고 소규모 마을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처리시설로 관리하는 방침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해남군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20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을 반영해 주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안정적 하수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자원봉사자·취약계층 아동 100명 초청 진도군, 해양 레저스포츠 무료체험행사

드림스타트, 방학기간 공예교실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진도군 드림스타트에서 최근 쏠비치 호텔 & 리조트 진도 일원에서 해양 레포츠 무료체험 행사를 했다.

이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취약계층 아동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사진〉

해양안전교실, 래프팅, 카약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했다.

드림스타트 여름학교는 방학기간 보호·교육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160명이 공예교실, 소방안전교육, 신나는 스포츠댄스 등 9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으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동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체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노안클리닉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